

大學에서의 西洋文化史 教育

趙 承 來

(淸州大 歷史教育科)

地球村時代라 명명되는 현대에 있어 民族의 主體性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모색할 진로를 오도할 우려가 있다. 지구촌의 國際化時代를 맞이하여 폐쇄적 주체성보다는 相互主體性에 입각한 국제적 안목을 지닌 새로운 세대의 양성을 위해 大學에서의 西洋文化史 教育은 強化되어야 한다.

1

주지하다시피 '70년대 이후 대학의 敎養科目의 주류는 國史와 國民倫理 등 주로 우리 민족의 傳統과 價値觀을 강조하는 것들이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교양 과목의 주류는 哲學概論과 文化史와 같은 좀더 보편적인 성격의 과목들이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상당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人間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敎養보다는 韓國人으로서 지녀야 할 主體意識을 더 중요시하는 '70년대 이후 敎育政策의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敎育政策은 近代化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國民的 統一性을 다지기 위해 불가피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否定的으로 보면 近代化 過程에서 행정의 效率性의 극대화라는 목시적 요구에 의해 나타나게 된 權威主義的 政治體制가 보편적 교양을 지닌 자

유로운 人間型보다는 忠孝라는 傳統的 지배 질서의 價値觀에 입각한 體制順應의인 人間型을 더 선호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 西洋에 대한 知識과 그 敎育은 점차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東道西器라는 말이 있듯이 서양의 발달된 기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우리의 魂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서양의 人文的 諸價値를 부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력히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西洋은 人情 없는 個人主義의 황량한 바람이 불어 오는 곳이고,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 거북살스러운 制度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낯선 곳처럼 인식되어 온 것이다.

물론 民族의 主體性을 강조하여 자신감과 희망을 갖는 國民이 된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다 보면

그 逆機能은 반드시 작동되는 것이다. 歷史의 例를 들면 독일과 일본이 20 세기에 들어와 전 인류에게 저지른 만행의 밑바탕에는 바로 民族精神 혹은 民族魂이라는 歷史學的으로나 社會科學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迷信的인 집단적 허위 의식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즉 우리 民族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기에 다른 민족은 우리 민족의 指導를 받아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集團의 誇大妄想症이 침략과 학살과 전쟁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民族의 主體性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늘날 地球村이라고 불리워지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모색해야 할 진로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産業化를 통해 世界經濟의 주도적인 위치에 올라 선 우리는 폐쇄적 주체성보다는 相互主體性에 입각한 국제적 안목을 지닌 새로운 세대를 길러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教育政策의 제도 수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그 한 방안으로서 필자는 大學에서의 西洋文化史 教育의 強化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大學에서의 西洋文化史 教育의 意義와 그 改善方案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2

大學에서의 西洋文化史 教育의 意義를 논하려면 우선 文化史에 대한 定義가 필요할 것이다. 왜 단순히 西洋史라고 하지 않고 西洋文化史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만 西洋文化史 教育의 의의는 좀더 선명히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歷史라고 하면 보통 과거의 政治(past politics)를 연상한다. 東·西洋을 막론하고 전통적인 역사는 중요한 政治的 事件들, 制度들의 수립과 폐지, 政治指導者들의 행적, 그리고 國家間의 外交와 戰爭 등에 관한 이야기로 존재해 왔다. 그러는 가운데 19 세기와 20 세기에 들어와 産業化의 과정에서 이러한 政治史는 한 民族이나 國家를 신성시하고 찬양하는 神話로 변질되기에 이르른 경우도 허다하였다. 그리하여 과

거의 人間과 社會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人間과 社會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는 歷史教育의 일반적 목표에서 벗어나 盲目的인 愛國心을 강조하는 경향이 역사교육계에도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政治史 혹은 國家史 中心의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人間과 社會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批判精神을 연마하지도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政治史와 國家史는 個人으로서 인간의 個性을 말살시키고 人間을 한낱 정치적 조작의 대상인 愚衆으로 타락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批判은 그 유명한 Jacob Burckhardt를 비롯하여 Johan Huizinga 등 위대한 文化史家들에 의해 줄곧 되어 왔다. 특히 美國에서는 20 세기 초반부터 政治史와 國家史 중심의 역사에 대한 반발로 思想史가 부각되었는데 이것이 대학의 교양 과목에 영향을 미쳐 文化史라는 用語를 탄생시킨 것이다. 즉 人間과 社會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거 시대의 인간과 사회의 政治的인 면과 아울러 그것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文化狀況 혹은 정신적 분위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美國의 역사가들은 감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外交史家인 William L. Langer 교수가 편집한 近代史 시리즈의 모든 책에서도 반드시 一章 이상의 思想과 文化에 대한 內容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大學의 교양 과목의 하나로 해방 이후 줄곧 계속되어 온 文化史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때 그 바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大學生들에게 과거 여러 民族이나 國家의 政治史를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고, 과거 人間들의 삶의 總體性 그 자체로서의 文化를 가르치자는 것이 文化史 教育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어떤 한 文化는 반드시 그것을 떠받쳐 주는 고도의 이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西洋近代文化는 合理主義와 科學的 世界觀 그리고 民主主義의 政治理念이 없이는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요, 朝鮮의 文化는 性理學의 여러 주의·주장이 없이는 또한 형성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文化史는 과거 人間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어

던 한 방향으로 지향하게 하였던 世界觀 내지는 價値觀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文化史 敎育은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世界觀과 價値觀 그리고 생각과 생활 방식에 접하게 됨으로써 그것들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검토하여 자신의 內的 世界를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文化史에 대한 定義를 통해 文化史 敎育의 첫째 목표는 바로 學生들의 精神的 訓練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3

필자가 대학에서 西洋文化史 敎育을 強化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데는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의 시대적 상황에서 도출되는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야말로 ‘하나의 세계’라는 全地球的 次元의 時代이다. 즉 여러 개의 독자적인 文明圈이 독립적 발전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대의 조류를 거부하고 폐쇄적인 獨自性을 고집한다면 그 어떤 긍정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時代에서 적극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른 民族 혹은 國家들과 선의의 경쟁과 상호 협조를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축적시켜 나가야 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안목과 감각을 지닌 사회 지도층을 대학은 배출해 내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적 안목과 감각은 어떻게 얻어지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이 다른 民族 혹은 國家에 대해서 좀더 많은 知識을 습득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요, 좀더 근본적으로는 다른 民族 혹은 國家가 역사를 통해 志向해 온 바가 무엇인지를 간파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大學의 교양 과목은 바로 文化史,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西洋의 文化史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統一新羅時代라든지 高麗時代 쯤이면 西洋文化史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 時代에도 西洋文化史를 알게 되면 人間과 社會에 대한 좀더 심도 깊은 통찰력을 구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겠지만 반드시 그 時代가 西洋文化史 敎育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現代 世界에서와 같이 西洋에 그 기원이 있는 世界觀과 方法論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西洋文化史의 敎育은 사회 지도층이 되기 위한 예비 敎育으로서 필수적인 것이다. 西洋의 世界觀과 方法論의 逆機能을 批判하고 그것을 主體의 修正하려고 할 경우에도 그 敎育은 또한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 非體系의이고 즉흥적인 批判만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왜 西洋文化史를 통해 西洋의 世界觀과 方法論을 이해해야 되는가, 社會科學이나 哲學 혹은 文學을 통해서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西洋文化史만이 서양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과목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西洋文化史는 다른 社會科學이나 文學과 哲學이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 첫번째 것은 역사는 文化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다른 학문처럼 문화의 특정한 일면만을 分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한 일면이 위치해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文化의 다른 일면들과의 관련성을 보여줌으로써 역사는 意味 있는 全體로서의 文化를 해독하게 해주는 것이다. 둘째로 역사는 文化를 靜態的으로 관찰하지 않고 動的으로 관찰한다는 데 그 장점이 있다. 즉 人間の 文化는 늘 變化해 가는 가운데 학문 중에 變化를 추구하는, 즉 그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展望을 타진해 보는 데 가장 유용한 학문은 바로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도출된 西洋文化史 敎育의 必要性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며 오늘날

우리에게 서양문화사 교육은 우리 공동체 삶의 戰略中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西洋文化史 敎育의 필요성을 精神的 訓練이라는 보편적 측면에서 그리고 국제적 안목의 배양이라는 우리 시대의 특수한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해야 할 것은 西洋文化史는 그야말로 大學의 거의 모든 디스플린의 기초 과목으로서 그 존재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학에서 연구되고 교습되는 거의 모든 디스플린의 기초적인 概念들은 대개 西洋文化의 발전 과정 안에서 生成된 것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가 뉴턴의 萬有引力의 법칙 혹은 社會主義나 全體主義 그리고 悲劇이나 plot 같은 것들은 西洋文化의 발전 과정 안에서 생성된 개념들이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개념들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人間의 삶과 역사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먼저 西洋文化史를 통해 브리핑을 받는다면 그것은 대단한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것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4

이렇게 볼 때 大學의 교양 과목으로서 西洋文化史는 필수적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1974년의 敎育法 改定으로 文化史는 교양 선택 과목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西洋文化史라는 강좌가 개설되는 대학은 거의 드물며 世界文化史라는 이름으로 주당 3시간 혹은 2시간의 한 학기 강좌로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개설되는 世界文化史도 100명에서 십한 경우에는 200명이 넘는 대단위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대단위 강의로는 西洋의 高級文化의 역사를 교수와 학생이 심도있게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大學에서 西洋文化史가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 정책 담당자들과 大學의 行政家들의 이해와 태도 전환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나름대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西洋文化史는 우선 필수 과목으로 부활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미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 國史와 함께 敎習될 때, 학생들은 역사에 대한 좀더 깊이 있고 폭 넓은 지식을 얻게 될 것이요 歷史意識도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걱정되는 것은 시대에 뒤지고 경박한 日本의 左派 歷史學者 혹은 知識人들에 의해 쓰여진 西洋史에 대한 서적이 서양사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번역되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적을 읽고 우리 학생들이 서양의 역사에 대한 그릇되고 편향된 지식을 습취하게 될 때 그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의 敎養必須科目으로서 西洋文化史가 西洋史를 전공한 敎授들에 의해 책임있게 敎習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역사를 신중히 생각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한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西洋文化史에 대한 시간 배정의 문제이다. 과연 西洋文化史를 효과적으로 敎習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적정 시간 수는 몇 시간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수진이 잘 갖추어진 몇몇 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의 교수진이 제시한 방안대로 몇 년간 시행해 본 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어쨌든 여기서 필자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주당 2시간의 한 학기 과목으로서의 西洋文化史는 도저히 그 교육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대단위 강의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文化史와 같은 기초적인 人文學 講義는 교수와 학생간의 일종의 知的 긴장 상태가 조성될 때 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100명 내지 200명 이상의 대단위 강의로는 이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에 필자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서로 그 性格이 비슷한 학과들을 한 반으로 하여 西洋文化史를 교습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佛文學科와 獨文學科를 한 반으로 하여 강의한다면 교수는 강의 진행중 프랑스와 독일의 文化史에 좀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며, 物理

學科와 化學科를 한 반으로 하여 近代科學이 어떤 역사적 배경하에서 탄생하였는가 하는 문제 등을 좀더 심도있게 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째, 西洋文化史에 대한 敎材를 좀더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歐美의 좋은 敎材를 번역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歐美 敎材가 그 분량이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아직까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리하여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내의 중진급 이상의 學者들이 共同으로 혹은 各자가 자신의 지금까지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敎재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미 국내에서 車河淳 敎授와 閔錫弘 敎授에 의해 각기 個性이 뚜렷한 敎재가 쓰여졌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歐美의 경우 매우 다양한 敎재들이 개발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교재 개발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각기 해석과 관점이 다른 여러 敎재가 개발됨으로써 西洋文化史를 가르치는 일선의 敎수들은 좀더 풍부하고 다양한 강의 내용을 준비할 수 있고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다양한 敎材는 敎수들로 하여금 西洋文化史 講義에 좀더 신경을 쓰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첨언해야 할 것은 副敎材의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즉 西洋文化史의 原史料들을 편집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흥미하게 함으로써 西洋文化史 敎育을 質적으로 향상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講義方法의 개선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방법은 問題中心의 講義法이다. 즉 각 단원마다 敎材의 內容은 미리 學生들에게 읽어오게 하고 敎수는 이를 바탕으로 그 단원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學說史의으로 소개하고 스스로 흥미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

하여 시험 방법도 변화가 요구된다. 서양문화사의 기본적인 知識은 단답형의 퀴즈로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좀더 커다란 문제를 학생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식의 시험을 치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는 플라톤이 Athens 民主政을 批判한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혹은 英國에 있어서 産業革命 結果를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또한 그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그것은 후진 국가들의 近代化에 모델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등 학생 자신의 심사숙고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것이다. 이때 助教의 활용이 요구된다. 즉 단답형의 퀴즈에 대한 채점은 大學院生인 助教가 맡고 敎수는 오로지 커다란 문제에 대해 과연 학생들이 논리적인 사고 전개를 하였는가, 그것은 합리적인 역사 인식에 근거한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5

지금까지 大學에서의 西洋文化史 敎育의 의의와 그 개선 방안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해 보았다. 정리해 보면 大學生들의 精神的 訓練을 위해 그리고 現代 社會가 요구하는 國際的 眼目を 가진 사회 지도층의 배양을 위해 大學에서의 西洋文化史 敎育은 필수적인 것임을 필자 나름대로 개진해 보았던 것이다. 또한 필자가 제시할 개선 방안은 조약한 우리나라 대학 교육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일단 설정해 놓는다는 일이 결코 무의미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